

시론
더욱 평화 파괴자의 무리
남조선 정세

구밀복검이란 입에는 꿀을 바르고 속으로는 칼을 가는 위선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다.
《평화》의 넘볼을 월세없이 외위오지만 뒤돌아서서는 침략전쟁준비에만 몰두하는 남조선호전세력의 이중적태도, 위선적인 망동이 바로 그러하다.
최근에도 남조선호전세력은 미국으로부터 스텔스전투기(F-35A) 도입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대잠초계기 6대를 도입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미국주도의 다국적연합공중훈련에 병력을 파견하겠다고 한다.
한편 대대급의 화생방특수입부대를 확대하여 확대개편한다. 120mm 자행박격포를 실전배치한다. 《수도포병려단》의 《2022년 훈련기》 훈련을 강화한다고 설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언론들은 스텔스전투기(F-35A)는 동족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킬체인》에서 핵심이 될것이며 화생방특수입부대도 《북을 겨냥한것》이라고 하고 있다. 남조선호전세력이 벌리는 무력증강과 전투력재형성 놀음이 추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명백하게 밝힌것이라고 볼수 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남조선의 정 필

정치간상배들의 진부한 타령

공화국의 자위적역역이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정의의 힘이라는것은 남조선선심파 세계가 인정하는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조선여야당의 《대통령》선거후보들은 경쟁적으로 동족의 자위적인 국방력발전권리에 대해 《도발》, 《벼랑끝전술》이라고 헐뜯고있다.
지어 《국민의힘》의 《대통령》선거후보 윤석열은 《선제타격》이니, 《한미합동군사훈련 정상화》, 《(싸드) 추가도입》, 《(주방백서)에 북을(주적)으로 명시하겠다》와 같은 극히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악담까지 공공연히 제치고있다고 한다.
친미사대와 외세의존에 쩌들고 동족대결에 환장이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미국을 위시한 적대세력들과 한쪽이 되어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 발전권을 지키려는 동족의 정당한 자위적권리행사에 대해 그렇듯 악랄하게 헐뜯을수 있단 말인가.
여야후보들은 자기들이 싸구려광고판과 같은 녹거리공약을 아무리 쏟아내도 남조선선심파 들은척도 안하는것이 과연 무엇때문이었는가를 생각해야 할것이다.
그것을 모르니 귀간지러운 공약만 람

대결광의 허세
최송건

반복에 쩌들은 딸지들이 쩌준 각본 그대로 외위대는 천치같은 주제에 제법 허세를 부려 휩소리치누나 《국민의힘》꼭두각시 윤석열 대결의 승풍이 드러내고 으르렁 대누나
말로 웨치는 평화가 아니라 힘을 통한 평화 실현하겠다는 북에 《선제타격》하겠다고 가스롭다 거품물고 토하는 그 객기 정말 삶은 개가 다 웃을 일이 로다
하루강아지처럼 짖는 짓누나 군대밥이란 하루도 못먹은자가 총이나 제대로 칠줄 알며 그러는지 소리나 질러대면 용감한줄 아니냐
역스러운 그 추태에 속이 울컥 치민다
대결에 미쳐도 더럽게 미쳐버린 반역당 《국민의힘》이 내세운 후보답구나 실태한 《대북정책》북사관 내들고 죽을등살등 모르고 날치누나
갈지 않은 횡설수설 더럽게는 뱉어내누나
얼마나 너의 광기 소름이 돌렸으면 전쟁에 들뜬 호전광이라 민심이 쪼갠나
북만 자꾸하는 정말 어리석은 것이라
이물수 없는 허세성공약이라 하나같이 환멸과 조소를 쏟아내겠다
들리지 않느냐
망언을 백주에 꺼리겁없이 지껄어
이런 윤석열 너를 두고 《당선》되면 전쟁 일어난다
일과만파로 퍼져가는 비난의 목소리가
너무도 자명하거나 미련한 윤석열과 역적당의 앞날이 자멸을 재촉하는 공약나발 붙어
대며
망상에 빠져 설레발치지 말고
불지른 놈 그 불에 타죽는다는 그 말의 뜻이나 다시 한번 곰씹어라

《민족을 전쟁으로 끌고가는 망언》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 《국민의힘》의 《대통령》선거후보 윤석열의 《외교안보공약》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의 《외교안보공약》이라는것은 그 무슨 《대북제재》강화와 《북인권제한》 등을 통한 《실사구시》, 《상호주의원칙》과 《신뢰회복을 통한 한미

갈수록 증폭되는 정치권에 대한 한멸감

남조선에서 《대통령》선거가 막대한 가운데 여야당선 후보들의 부정부패의혹이 계속 터져나오고 각 정당들의 내부싸움이 그칠 사이없이 벌어지는것으로 하여 정치권에 대한 각계의 비난이 더욱 고조되고있다.
《뉴스》, 《헤럴드경제》를 비롯한 남조선언론들은 《자고나면 터지는 여야사회의 폭로공방은 유권자들을 실망케 하고있다. 여야 유력대선후보들의 비호감은 력대급이다.》, 《대선후보본인의 과거문제가 대선전 비방, 폭로전으로 비화된 경우도 전례를 찾기 어렵지만 후보들의 배우자들이 주요검증대상이 된 전례도 없었다.》, 《네거티브(비방전)가 판치는 《력대급 비호감대선》이라는 비판을 받은 정도로 대선이 비방, 폭로전으로 비화되다보니 여야의 고발건수가 많아지고 있다.》, 《신심성공약과 황

아래의 내용은 남조선잡지 《한겨레》이 치밀리는 폭력의 대상이 되어 비참하게 살아가는 녀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것중의 일부를 전재한것이다.
이들의 이야기는 남조선에서 녀성과 아이들에 대한 폭력이 하나의 사회적공으로, 고질적인 악습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 《남편의 폭력으로 따로 살고있는데 심한 언어폭력, 신체폭력은 물론 흉기로 위협당하기도 한다. 도움 받을 곳이 없다. 고립된 생활이 이어지고있다.》
- 《아비란 사람이 회사모임에 가져갈 어머니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의자를 던져 눈에 멍이 들게 하였으며 그 멍을 보며 참대못같다고 놀려댔다.》
- 《교박꼬박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맞았다. 사실 지금도 그렇게 살고있다.》
- 《50kg 넘으면 너자가 아니라면 시 몰래 식욕억제제를 먹었다. 너자를 발로 차고 주변의 물건으로 폭행을 하여 몸에 멍이 들었다. 운다는 이유로 아이를 발로 찬적도 있다.》
-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를 막아서다가 아버지에게 발길질당하고 맨손으로 맞았다. 너무 아프고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형박했으며 (넌 내 인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 《자신이 화가 났다는 이유로 나를 발로 차고 주변의 물건으로 폭행을 하여 몸에 멍이 들었다. 운다는 이유로 아이를 발로 찬적도 있다.》
-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를 막아서다가 아버지에게 발

한 선제타격론은 일본국우세력의 적지공격론과 유사하다.》 등으로 윤석열을 준렬히 성토했다 그의 《대통령》선거후보직사퇴를 주장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군통수권도 쥐지 못한 처지에서 떠벌인 허세성공약.》, 《미국으로부터 전직장관전례도 회수하지 말자고 소리치는 《국민의힘》이 무슨 수로 선제타격을 하는가.》라는 조소의 목소리도 남조선 각계에서 울려나오고있다.
본사기자

죄악우에 죄악을 덧쌓는 파렴치한들

이웃집에서 담장을 든든히 쌓는다고 하여 저희 집에 위협이 된다고 고야대는 자가 있다면 아마 평신병자이거나 피해망상중에 걸린자라고 해야 할것이다.
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를 두고 그 무슨 《안보위협》, 《위협》을 떠들며 군사대국화야 망설이는데 날뛰는 일본의 행태를 보면 정신이상이거나 고질적인 제질열병이 발작한다고밖에 달리 설명할수 없다.
그 무슨 《대조선제재의 엄격한 리행》, 《미일동맹강화》를 떠벌이는가 하면 자국내에서 《북에 의한 안보불안》을 여론화하는 일본의 망동은 말그대로 도적이 제발 저런다는 격이다.
주권국가의 정정당당한 권

정의와 문명에 대한 용납 못할 유린

《사도광산에도 조선인이 동원됐지만 대부분이 모집에 응한 사람들이고 나머지도 합법적인 동원이지 강제노동은 아니다.》
이것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섬나라족속들이 내뱉는 말이다.
이미 지난해에 일본은 《일제강점기에 모집, 알선, 징용 등은 강제노동에 해당

얼마나 위험하고 악착했던가를 짐작할수 있게 한다.
더우기 일본우익세력들이 《사도광산에서 조선인강제노동이 없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자료에도 《채굴이나 운반 등 위험한 경내작업은 대부분 조선인이 담당했다.》는 자료가 들어있는 것이다.
이러한 력사적사실자료들은 사도광산에서 조선인강제노동이 없었다고 하는 일본당국자들이야말로 얼마나 변변스럽고 후안무치한 무리들인가 하는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왜나라족속들이 조선인강제징용피해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한것은 과거법죄에 대한 반성과 배상은 커녕 오히려 극구 미화하면서 죄악우에 죄악을 덧쌓는 반인륜적망동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죄악은 한줄기에서 자라나고 했다.
죄악우에 죄악을 덧쌓는 사도섬이 니이가타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이라고 볼 때 목숨을 내뱉 이들의 탈출은 광산에서의 고역이

